

임실치즈산업 명성 지킨다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성과목표·추진전략 보고회... 협력체제 구축키로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한민국 체임 1번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지켜 나간다

또한 치즈산업 전반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치즈 및 농식품 소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사)임실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자립화를 통한 판매마케팅의 극대화를 노린다

임실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출자출연기관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갖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실군은 2018년 출자출연기관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갖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심 민 군수는 행정과 출연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보고회를 갖고, 임실치즈산업 활성화와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 관광지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대한민국 체임 1번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재)임실치즈테마파크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고객만족 식당운영 방안, 1시간 1대표관광지 사업 추진 계획 등 4개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 군수는 "지난해 대성공을 거둔 임실치즈축제의 슬로건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 대행사 선정, 주차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연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임실치즈 품질개발 및 농식품 소재 연구개발을 통한 명품 치즈 생산기반 구축, 관내 나눔·유가공 기술지원 등 임실치즈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사)임실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임실치즈 홍보마케팅 사업 계획과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 사업단 지원과 사업 혁신역량 강화 사

업 등 사업단 자립화와 판매마케팅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한민국 대표 체임관광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식재물 기반 불거리 제공,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직원전력서비스 향상 등 고객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리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장난감 도서관 인기돌풍 예감

2주만에 가입자 100여명 · 주말휴일 120여명 방문

순창읍에 사는 김모(41, 여)씨는 지난 7일 일요일 새롭게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딸이 6살이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장난감을 빌리기 위해서다. 김씨는 이날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방문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었다.

순창군이 이달 2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 장난감 도서관이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운영 2주만에 100여명이 가입했다. 한 가구에서 부모가 가입하고 실제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들이 모두 이용하니 이용자수는 100여명을 훨씬 웃돈다. 실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이용자가 하루 120여명을 넘어서면서 인기

를 끌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이 미취학 아이들을 둔 부모들로부터 핫플레이스(Hot Place)로 떠오르고 있는 것.

장난감 도서관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부에 장난감 대여실, 액션볼 놀이실 역할 놀이실, 북카페, 수유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쉴 수 있는 멀티 공간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은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의 연회비는 일반회원은 2만원, 어린이집 등 시설회원은 인원수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다.

장난감은 2주간 대여가 가능하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향가터널 그림타일 설치

순창군이 최근 향가오터널주변 향가터널에 200여점의 그림타일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그림타일은 지난해 9월경 향가오터널주변에서 열린 '향가 가을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방문객들의 소망 그리기 행사와 제12회 순창장류축제 기간 중 장류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통해 그린 200여점의 작품을 타일 형식으로 만들어 설치한 작품이다.

향가터널내 200m 길이 '꿈의 자리'에 설치했으며 이번엔 약 19m의 그림타일을 설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농기센터,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수강생 60명 19일까지 모집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9일까지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수강생 60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 수강생은 심화반과 기본반 각각 30명이며, 관내에 거주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한다.

수강내용은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전략, 블로그 운영, 오픈마켓 활용법 등이며, 1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교육할 계획이다.

신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lmsi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에게 신청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 선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곤충아트 특별전' 1만여명 방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곤충아트 특별전'에 지금까지 1만여명이 다녀갔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곤충과 아트를 주제로 하여 '곤충아트체험관', '곤충생태관', '곤충놀이터', '세계희귀곤충표본관' 등 다양한 곤충관련 예술작품과 많은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주목 받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용인농업기술센터 등 전국각지의 곤충산업 및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이 지속되는 등 교육체험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로15m 세로2.5m의 국내 최대규모의 버터플라이잉아트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곤충예술 작품으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야광동굴체험과 살아있는 곤충을 더욱 특별하게 관찰하는 만화경수조 등 다양한 체험전시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학부모님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50여종 100여 마리의 다양한 곤충과 절지생물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시관에서 10분 거리인 배재봉 일원에서는 2월 11일까지 제7회 지리산 남원 배재봉 눈꽃축제가 열리며 주요행사로는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등산, 눈꽃등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남원시, 홈페이지에 주민 안내문 게시... 사업 가능성 등 확인 필요

남원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주민 안내문을 게시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하이브리드 공동구매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하여야 하는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

설 대지의 80%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에 대하여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